



김도형(서울기독대)

1. 여는 말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스라엘)의 하나님’¹으로 묘사된다. 하나님이 아브람(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족장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²에 대한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 두 명에서부터 시작하여(창 28:13,

1 보스(Elizabeth Boase)는 이것을 ‘신조와 같은 공식’(credal-like formulation)이라고 표현한다. “Life in the Shadows: The Role and Function of Isaac in Genesis: Synchronic and Diachronic Readings”, *Vetus Testamentum* 51.3 (Jul., 2001), 312.

2 클라인스(David J.A. Clines)는 오경의 주제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사람의 관계성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한다. 창세기는 자손에 대한 약속,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약속, 민수기와 신명기는 땅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The Theme of the Pentateuch* (JSOTSup. 1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48-65를 보라.

31:42, 32:9; 왕상 18:36; 창 35:12, 27 참고; 창 49:31 참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명으로 확장된다(출 3:6, 15, 16, 4:5; 출 2:24 참고; 6:3 참고; 32:13 참고; 신 1:8 참고; 6:10 참고; 9:5, 27 참고; 29:12 참고; 30:20 참고; 34:4 참고; 시 105:9-10 참고; 렘 33:26 참고). 이들 족장에 대해서는 신약성서까지 넓게 인용되고 있다(마 22:32; 막 12:26; 눅 20:37; 행 3:13; 7:32, 7:8 참고).³ 이와 같이 이스라엘 첫 세 명의 조상들은 성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매우 친숙하다. 그러나 족장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내러티브를 살펴보면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삭의 경우에는 ‘이삭의 하나님’(창 46:1)과 같이 독자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⁴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달리 두 번째 족장의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다른 내러티브에 비해 부분적으로 적게 할당되어 있다. 즉, 이삭 관련 내러티브가 여러 장들에 걸쳐 흩어져 있으므로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모호한 점이 있다.⁵

이삭의 인물묘사에 관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삭은 다른 족장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간주되며⁶ 연약하고 수동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스(Elizabeth Boase)가 밝혔듯이, 아브라함 내러티브에서 이삭은 아들로써(창 17:19; 21:3) 종속적인 성격의 인물로 등장하며,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창 25:26) 주변적인 역할로 묘사되기도 한다.⁷ 예를 들면, 아브라함 관점에서 볼 때 모리아 땅에 위치한 산에서 드린 번제(창 22장)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24장) 모두 이삭이 주도적인 것으

3 이외에 혈통적인 족보와 관련되거나(마 1:2; 눅 3:34) 세 명의 이름이 순서적으로 언급되곤 한다(마 8:11; 눅 13:28).

4 야모스 예언자는 이삭과 관련하여 ‘이삭의 산당들’(암 7:9) 또는 ‘이삭의 집’(암 7:16)으로 표현한다.

5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피린만장한 삶을 산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12-25장)와 역시 피린만장한 삶을 산 아들 야곱의 이야기(26-35장) 속에 들어 있어 종종 그 독립성을 의심받고 있다.” 서명수, “야곱 이야기의 구조와 주제”, 『문학과 종교』 제10권 1호 (2005), 63.

6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야곱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삭에 관한 내용은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A.B. Luter and S.L. Klouda, “Isaac”,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Pentateuch*, T. Desmond Alexander & David W. Baker(ed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3), 445-450.

7 보스는 창세기 21-25장에 나오는 이삭 인물묘사에 대해서 ‘수동적’(passive), ‘비활동적’(non-active), ‘순응적’(compliant), ‘고정적’(static), ‘나약한’(weak)이라는 유사한 형용 표현들을 사용한다. Boase, 윗글 312-335.

로 언급되지 않는다. 리브가와 결혼에 이르는 것도 그의 아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⁸ 반면, 창세기 26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만남을 포함하여 27-28장까지 세 장의 첫 장면에서는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와 야곱 사이에 축복하는 주체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이야기가 전달되는 가운데 보조자의 역할로 읽혀지기도 한다.⁹ 이로 인하여 창세기 28장 6절부터 이야기의 초점은 이삭이라기보다 두 아들(에서와 야곱)에게 급격히 이동한다. 내러티브 관점에서 이삭의 인물모사가 수동적이고 중속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다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전형적인 틀 안에서 두 번째 족장의 위치에 있는 이삭이 다소 약하게 읽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본문에 나타난 이삭 관련 내러티브의 구조와 기능을 통하여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본 글에서 필자는 위의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우선, 이삭 관련 내러티브의 범위를 중심으로 이전 학자들의 논의를 언급한다. 다음으로 내러티브 비평의 도움으로 이삭 가족 내러티브의 문학적 구조를 다루면서 해석의 지평을 넓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본문을 읽어야 하는 독자에게 이삭 가족 내러티브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1내러티브(창~왕하)¹⁰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그 의미를 도출하려고 한다.

8 진슨(Sharon Pace Jeansonne)은 리브가를 '확고한 여성족장'으로 묘사한다. *The Women of Genesi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53-69; 스테인버그(Naomi Steinberg)는 리브가 싸이클(창 25:12-35:29)을 일부일처제 결혼(monogamous marriage)임을 확인시킨다. *Kinship and Marriage in Genesis: A Household Economics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33), 87-114; 유연희,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이야기", 『헤르메니아 투데이』 22 (2003), 67-83; 이희학,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다시 읽는 '아브라함-사라 이야기'", 『구약논단』 49집 (2013년 9월), 14-41.

9 Robert Martin-Achard, "Isaac", *ABD*, vol. 3 (New York: Doubleday, 1992), 462.

10 이에 관하여 김도형, "내러티브 비평과 구약 제1내러티브(창세기~열왕기하)의 구조", 『구약논단』 62집 (2016), 155-191를 참고하라.

2. 창세기에서 이삭 관련 내러티브의 범위에 관한 논쟁 - 이삭 내러티브인가, 이삭 가족 내러티브인가

이삭 내러티브의 범위에 대한 논의에서 첫 번째 다루어야 할 사항은 그의 이야기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보아야 할 것인가이다. 즉, 이삭 내러티브의 문학적 구성의 첫 부분을 그의 출생 기사(창 21:1-7)로부터 볼 것인지¹¹ 아니면 톨레돏 문구(toledoth-formula)에 의해서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의 선택적인 사항이다.¹² 이른바 아브라함과 야곱 내러티브 중간에 위치한 이삭 내러티브는 그의 출생 기사(창 21:1-7)부터 죽음 기록(창 36:27-29)까지 상대적으로 폭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묘사된 이삭은 사실상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왔다. 그 이유는 학자들의 구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삭에 관한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창 12-26장)’¹³, ‘이삭의 일생: 장자와 차자의 다툼(창 21:8-28:4)’¹⁴ 또는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 라헬, 실바, 빌하’¹⁵, ‘이삭 가족 기사(창 25:19-35:29)’¹⁶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에게 속하거나 가족 중심으로 관계가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창세기 내러티브에서 각 족장들의

11 이삭의 이름이 처음 거론된 부분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출생이 예고되는 창세기 17장 19절이다.

12 톨레돏 문구는 창세기에서 첫 번째 천지창조와 관련된 것(2:4a)을 제외하고 대부분 특정한 인물을 소개될 때 사용된다(아담-5:1, 노아-6:9,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10:1, 셈-11:10, 데라-11:27, 25:12-이스마엘, 25:19-이삭, 36:1, 9-에서, 37:2-아람). 흥미로운 사실은 이 문구들 안에 아브라함이 제외되어 있는 반면, 이스마엘과 예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13 강성열, 「현대인을 위한 창세기 강해」(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129-220.

14 David A. Dorsey,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Malachi*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57-58.

15 Dianne Bergant, *Genesis: In the Beginning*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3), 103-154; ‘이삭-리브가 이야기(창 23:1-25:11: 26장)’로 구분되기도 한다. 김재규, 「창세기 로드맵」(서울: 홍림, 2018), 354-431.

16 김의원, 「창세기 연구」(서울: CLC, 2013), 421-549; 정석규는 ‘이삭의 후에(야곱) 이야기(창 25:19-35:29)’로 구분한다. 「구조로 읽는 창세기」(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6), 236-310.

17 왕대일도 이삭 이야기의 절반은 아브라함에게, 나머지 절반은 야곱에게 속해 있음을 언급한다. “이삭을 위한 변증: 창세기 25장 19-21절”, 「기독교사상」 47/6 (2003. 6), 102-109(특히 103을 참고하라). 또한, 왕대일은 야곱 이야기의 시작 지점에 대하여 학자들 대부분 25장 19절로 일치하지만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은 의견들이 서로 다르

죽보 소개와 출생 또는 소명 장면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단위로 볼 때¹⁸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은 시작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창세기 11장 10절 또는 11장 27절-25장 18절이라고 소개된다.¹⁹ 반면, 야곱 내러티브의 시작은 창세기 25장 19절이라고 보는 데에는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이야기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삭 관련 내러티브는 어떠한가? 이것은 좁은 범주의 차원에서 아버지나 족장으로서는 축복하며 그의 활동이 소개되는 창세기 21장 1절(또는 출생 예고에 해당하는 창 17:19)이나 25장 19절부터 28장 9절까지 한정되는가, 넓은 범주에서 35장 29절(죽음 기사) 또는 37장 1절(야곱 틀레돏 직전)까지 간주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점이 남게 된다. 전자의 경우는 아브라함의 죽음 보도(창 25:1-11) 이후 19절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죽보’(창 25:19)의 소개는 아버지 중심에서 아들로 확장되지만 이후 에서²⁰와 야곱에 관한 내용과 겹치게 된다. 후자의 경우를 선택할지라도 이삭의 출생과 유년기를 포함하여 그에 관

다고 지적하면서 세 가지 이유에서 36장 43절을 끝부분으로 주장한다. 첫째, 람비들에 의한 맛소라 본문의 단락 구분이다. 둘째, 이삭의 후예를 보도하는 계보의 마감이다. 셋째, 야곱 이야기의 결론이면서 요셉 이야기를 여는 고리라는 점에서 사리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계보를 전하는 고리(창 23:1-25:18)와 구조적으로 평행하다는 것이다. “다시 읽는 야곱 이야기(창 25:19-36:43): 그 구조(Composition)와 의미(Concept)”, 『구약논단』 4집 (1998년 4월), 5(각주 1번을 참고하라).

18 이 구분은 톨레돏(*toledoth*)의 시작을 기준으로 한다. 창세기 37-50장의 경우 이른바 요셉 이야기를 대신하여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야기’의 새로운 제목 설정에 관한 논의는 Dohyung Kim, “Genesis 37-50: The Story of Jacob and His Sons in Light of the Primary Narrative (Genesis ~ 2 Kings),” *ExpTim* 123.10 (2012), 486-493을 보라.

19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셈의 족보 또는 27절 이하의 데라의 족보로부터 간주한다. 예를 들면, 코오츠(George W. Coats)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 11장 10-25장 26절로 구분한다. 그의 저서 *Genesis with an Introduction to Narrative Literature* (Grand Rapids: W.B. Eerdmans Pub. Co., 1983), 97-102를 보라; 프레다임(Terence E. Fretheim)은 족장들에 관하여 아브라함(창 11:27-25:18), 야곱(창 25:19-36:43), 요셉, 유다와 야곱의 가족(창 37:1-50:26) 이야기로 구분한다. “The Book of Genesis”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1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319-674; 아브라함 이야기의 범위에 대한 간략한 논의는 김도형, “데라 죽보(창 11:27-32)의 선교적 기능: 내러티브 관점을 중심으로”, 『대학과선교』 제38집 (2018), 163-187(특히 175-181을 참고하라).

20 에서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25장 27-34절, 26장 34-35절, 27장 30-45절, 28장 6-9절, 33장 1-16절, 36장 1-43절 등이다.

한 내러티브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확고한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강하다. 따라서 이삭 관련 내러티브는 아브라함이나 야곱 내러티브와 대조적으로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최근까지 학자들에 의해 창세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진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삭에 관한 인물묘사도 비교적 부족하다는 점이다.²¹ 이것은 곧 이삭 관련 내러티브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결과까지 영향을 끼쳤다. 소위 이삭 내러티브를 다루는 학자들은 제목과 범위에 관하여 세 가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첫째, 이삭 내러티브는 족장 내러티브 타이틀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²² 둘째, 이삭 내러티브가 족장 내러티브 가운데 독립적이지 못하고 일부분으로만 취급되고 있다.²³ 셋째, 이삭 내러티브는 아브라함과 야곱 내러티브의 위치와 역할 면에서 동등하게 다루어진다.²⁴ 이를 살펴보자.

-
- 21 유연희, 「아브라함과 리브가와 야곱의 하나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7; 김재구, 「이삭 이야기의 신학적 재조명」,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1집 (2010), 5.
- 22 E.A. Speiser, *Genesis*, AB vol.1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2); Walter Brueggemann, *Genesis*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Thomas L. Brodi, *Genesis as Dialogue: A Literary, Histo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L. A. Turner, "Genesis, Book of" in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Pentateuch*, T. Desmond Alexander & David W. Baker(ed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3), 350-359; 강사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가정 이야기: 설교를 위한 창세기 연구」(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8).
- 23 폰 라트(Gerhard Von Rad)는 창세기 21장 이삭의 출생과 26장에서만 그의 이름을 언급한다. 그의 책 *Genesis: A Commentary* (London: SCM Press, 1972), 230-235, 268-273을 참고하라; G.A. Rendsburg, *The Redaction of Genesis* (Winona Lake: Eisenbrauns, 1986); 베스터만(Claus Westermann)은 창세기 26장에서만 이삭에 관한 제목(Isaac and Abimelech)을 소개할 뿐이다. *Genesis 12-36: A Continental Commentary* trans. by John J. Scull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420-431; 차준희, 「창세기 다시 보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24 Coats, *Genesis with an Introduction to Narrative Literature*;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BC 2 (Grand Rapids: Zondervan, 2000); Bruce K. Waltke,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강규성, 「창세기에 대한 성경신학적 묵상: 창조주 하나님의 방문」(서울: 예영 B&P, 2010).

1) 이삭 내러티브 타이틀을 삭제하는 주장

구약 해석자들에게 족장 내러티브에서 이삭 내러티브의 타이틀(제목)이 완전히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서의 일차적인 자료와 문서의 기원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역사비평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족장 내러티브의 자료들이 복수의 저자와 여러 편집의 단계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19세기 독일의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서설(J, E, D, P)에 따라 최소한 몇 개의 자료들(특히 J, E, P)이 섞여있다고 주장한다. 족장들과 관련된 자료 가운데 이삭에 관한 것은 여러 층들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자들은 이삭 내러티브가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독자적인 내러티브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 스페이저(E.A. Speiser)는 족장 이야기를 아브라함(창 12:1-25:18), 야곱(창 25:19-37:2a),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37:2b-50:26)에 관한 내용 등 삼분법으로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이삭에 관한 것은 다른 자료들 사이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해당되는 각각의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계약과 할례(창 17:1-27—P)

이삭의 출생과 하갈의 추방(21: 1-2a—J; 2b-5—P; 6-21—E)

이삭의 시련(창 22:1-19—E/J^a)

이삭과 리브가(창 24:1-67—J)

그두라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죽음, 이스마엘의 족보(창 25:1-6, 11b, 18—J^a; 7-11a, 12-17—P)

에서와 야곱: 출생과 유년시절(창 25:19-20, 26b—P; 21-26a, 27-34—J)

이삭에 대한 다양한 내용(창 26:1-33—J; 34-35—P)

이삭이 속임수에 당함(창 27:1-45—J)

야곱이 라반에게 보내짐(창 27:46-28:9—P)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이삭 관련 본문들은 대부분 세 가지 서로 다른 문서들로 섞여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가 자료의 특징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을지라도 현재의 내러티브 구조에 대한 연결점과 합의점에는 명백하게 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²⁶ 내러티브의 범주 설정이나 등장인물을 인과적으로 구성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본문의 복잡한 과정과 기원에 대한 논의에서 여전히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²⁷ 따라서 최종 형태의 본문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단편적인 조각의 모음집으로 고려할 때 내러티브의 연속선상에서 내용 이해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자신의 주석서에서 아브라함 내러티브(창 11:30-25:18)와 야곱 내러티브(창 25:19-36:43) 사이에 이삭에 관한 내용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그는 소제목에서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선택적이며 ‘포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The Embraced Call of God)으로, 야곱 내러티브는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The Conflicted Call of God)이라고 하여 ‘부르심’의 주제로 이를 지칭하고 있다.²⁸ 그러나 이삭은 개명된(epithetic) 아버지(아브라함)와 아들(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작명된 이름을 소유하며,²⁹ 하나님 약속의 첫 담지자(recipient)가 되었다(창 17:19-21, 21:1-7).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족장에 위치한 이삭이 외면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더 나아가 최종적인 본문 읽기의 입장에서 볼 때 브루그만의 견해는 이삭의 위치와 역할이 분명하게 검토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더

25 Speiser, 윗글, 122-283.

26 A.B. Luter and S.L. Louda, "Isaac", in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Pentateuch*, T. Desmond Alexander and David W. Baker(eds.), (Dow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3), 446.

27 왕대일, "다시 읽는 야곱-에서 이야기", 『세계의 신학』 12 (1991.9), 71-95.

28 Brueggemann, 윗글을 참고하라.

29 Boase, 윗글, 320. 이삭은 아브라함(창 17:5)과 야곱(창 32:28; 35:10)과는 달리 이름을 개명하지 않는다. 보스는 이것이 이삭 인물묘사의 중요성 약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두 세대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말한다.

너(L. A. Turner)는 창세기 내러티브를 크게 시분법으로 나눈다. 1부 원역사(창 1:1-11:26), 2부 아브라함 이야기(창 11:27-25:18), 3부 야곱 이야기(창 25:19-36:43), 4부 야곱의 가족 이야기(창 37-50장).³⁰ 하지만 이 구성에서도 이삭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부재함으로 인하여 유기적인 내용의 연결로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

2) 이삭 내러티브가 비독립적이라는 입장

다음으로, 이삭 내러티브를 두 족장 내러티브 사이에 끼어있는 일부분으로 보거나 단순 연결 자료로 간주하는 견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창세기 족장 이야기에서 이삭에 관한 내용을 이차적인 부분으로 다루는 경향이 많다. 예를 들면,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에서는 이삭에 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주석서들이 에서와 야곱을 주인공으로 고려하고 있다. 베스터만(Claus Westermann)은 창세기를 크게 원역사(1-11장)와 족장사(12-50장)로 대별하여 족장사는 아브라함(창 12-25:18), 야곱과 에서(창 25:19-36:43), 요셉 이야기(37-50장)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성에서도 이삭의 존재는 별로 부각되지 않는다. 다만, 이삭의 출생(창 21:1-7)과 이삭과 아비멜렉(26:1-35), 이삭의 죽음(35:27-29) 등 일부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³¹ 베스터만 역시 이삭이 족장으로서 분명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애굽에서 주로 활동했던 요셉이 이스라엘 조상으로서 족장의 위치에 설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밀턴(Victor P. Hamilton)은 두 번째 족장 부분을 이삭/야곱 이야기(창 25:19-36:43)로 공유하는 제목을 제시하지만 이삭과 야곱을 아브라함과 요셉보다는 독립적이지 못한 것으로 구분한다.³² 창세기의 구

30 Laurence A. Turner, *Genesis* 2nd.,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9).

31 Westermann, *윗글*, 330-335, 356-357, 420-430을 보라.

32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173-402.

조를 편집적인 시각에서 다룬 렌즈버그(G. A. Rendsburg)는 창세기 내러티브를 다섯 개(원역사, 아브라함, 야곱, 연결자료, 요셉)의 구성으로 나눈다. 그는 두 개의 연결 자료인 창세기 23장 1절-25장 18절과 창세기 35장 23절-36장 43절을 제시하고 아브라함과 야곱 이야기를 연결하는 첫 번째 자료가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연결하는 두 번째 자료와 평행한다고 말한다.³³ 하지만 이 연결 자료가 이삭 중심인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 약속의 담지자로서 이삭의 위치와 그의 역할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과 에서의 결혼을 각각 동일한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전통적인 명칭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삭 관련 내러티브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하거나 아들인 야곱과 내러티브를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내러티브가 15개의 장들(11-25장)로 구성되고, 야곱의 경우 젊을 때(25-36장, 총12장)와 나이가 들었을 때(37-50장, 총14장)를 합하면 총 26장이다. 이에 반하여 이삭에 관한 내용은 출생에 관한 기사(21장)와 모리아 땅의 번제(22장), 아내 리브가와 관련된 부분(24장), 에서와 야곱의 출생 내용(25장), 그랄 거주(26장), 에서와 이삭의 축복권 문제(27-28장), 이삭 죽음 기사(35장)까지 8개의 장들에 불과하며 그것도 흩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의 관계에서 아들(יִצְחָק, 벤)로서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으며(창 21-25장),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아버지(אֲבִי, 아브)로서 후견자의 입장에 위치하고 있다(창 27-28장). 보스(Boase)는 통시적이고 공시적 읽기를 통해 아들로서 이삭(창 21:1-25:18)과 중심인물로서 이삭(창 26장),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삭(창 27:1-28:9) 등 세 부분으로 내러티브를 구분하고 있다.³⁴ 만일 이삭이 아버지나 아들과는 별도로 내러티브의 주인공으로서 분명하게 드러나

33 A 사라의 죽음과 매장(23:1-20), B 이삭의 결혼(24:1-67), C 아브라함의 아들들(25:1-6), D 아브라함의 죽음과 매장(25:7-11), E 이스마엘의 아들들(25:12-18) A'—C' 야곱의 아들들(35:23-26) D' 야곱의 죽음과 매장(36:6-43) B' 에서의 결혼(36:1-5) E' 에서의 아들들(36:6-43). Rendsburg, *위글*, 71.

34 Boase, *위글*, 313-335.

는 부분이 있다면 그랄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서 그와 계약을 맺는 장면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창 26장). 사실상 이삭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은 모리아 땅에서 번제 사건을 제외하면 창세기 24-26장 등 세 장에 집중적으로 언급될 뿐이다. 이후 27장 1절에서 이삭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연약한 아버지로 묘사되면서 이야기의 초점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동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이삭이라는 인물이 역할 중심의 이동에서 적절하지만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의 족보 사이에 이스마엘의 족보(창 25:12-18)가 있다는 점과 이삭의 죽음(창 35:27-29)과 야곱의 족보(창 37:2) 사이에 에서의 자손(창 36장)이 위치하고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 자료에 대한 최종 본문의 위치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하기에 이러한 부수적인 주장은 빈약해 보일 수밖에 없다.

3) 이삭 내러티브의 동등성 견해와 이삭 가족 내러티브의 대안적 제시

마지막으로, 이삭 내러티브를 아브라함과 야곱과 동등한 위치로 바라보는 시각은 세 족장의 관계적인 측면과 더불어 내용적인 연결로 보는 견해이다. 보스가 지적한 대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이삭 내러티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과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삭 자신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관심은 전환된다. 즉, 이삭은 아브라함과 다음 세대 사이에 하나의 연결 고리로써 제시된다.³⁵ 또한, 창세기를 하나의 웅장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문학작품으로 이해를 할 때 족장 내러티브는 각각의 독특한 구성적 요소를 품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틀리(Hekeb-Ann Hartley)의 주장대로 “이야기를 말한다는 것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³⁶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같은 위치로 구분하려는 노력은 수용할만하다. 코우츠(George W. Coats)는 창세기

35 윗글, 318.

36 Helen-Ann Hartley, *Making Sense of the Bible* (London: SPCK, 2011), 13.

내러티브에 대해서 원역사(1:1-11:9)를 포함하여 아브라함(창 11:10-25:26), 이삭(25:19-37:2), 야곱(37:1-50:26) 중심으로 동등하게 구분한다.³⁷ 물론 이러한 분류가 이삭이나 야곱을 단독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세 족장의 연속적인 면에서 자연스럽지만 족장들 사이의 활동 경계선이 중첩되므로 개인 중심의 내러티브 구성에서 볼 때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

웬함(Gordon J. Wenham)은 아브라함(창 11:27-25:11)과 이삭(25:19-35:29)과 요셉(창 37:2-50:26) 사이에 각각 이스마엘 가족 역사(창 25:12-18)와 에서 가족 역사(창 36:1-37:1)를 위치시킨다.³⁸ 그는 야곱 내러티브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 대신 요셉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야곱의 활동 범주로 볼 때 세 번째 족장으로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한편, 왈키(Bruce K. Waltke)가 툴레돏 중심으로 열 개의 이야기를 분류한 것은 흥미롭다(하늘과 땅 이야기 2:4-4:26, 아담 자손 이야기 5:1-6:8, 노아와 가족 이야기 6:9-9:29, 셈과 함과 야벳과 자손들 이야기 10:1-11:9, 셈의 자손 이야기 11:10-26, 데라 자손 이야기 11:27-25:11, 이스마엘 자손 이야기 25:12-18, 이삭 자손 이야기 25:19-35:29, 에서 자손 이야기 36:1-37:1, 야곱 자손 이야기 37:2-50:26).³⁹ 이러한 분류는 툴레돏을 기점으로 내러티브가 구성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 학자들의 공통점은 이삭 관련 내러티브의 범주를 동일하게 창세기 25장 19절-35장 29절 또는 37장 1절까지 위치시키고 있다. 국내 학자로는 강규성이 인물 중심으로 창세기 내러티브를 균형있게 다루었다. 그는 창세기의 구조를 처음 프롤로그(창 1:1-2:3)를 제외하고 총 5부로 나누었고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아담에서 노아에게로: 창세기 2:4-6:8, 제2부 노아에서 아브라함에게로: 창세기 6:9-11:26, 제3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창세기 11:27-25:18, 제4부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창세기 25:19-36:43, 제5부 야곱에서 이스라엘에게로: 창세기

37 Coats, 윗글, 97-102, 177-181, 259-261을 각각 참고하라.

38 Wenham, 윗글, 162-166, 332-342.

39 Waltke, 윗글: 이 구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내 학자로는 정석규, 윗글을 참고하라.

37-50장.⁴⁰ 이 분류의 특징은 아브라함과 야곱 내러티브에 흠어져 있는 이삭 관련 내러티브를 적절하게 보여주며 프롤로그와 같이 마지막 5부의 끝부분도 인물 중심이 아니라 국가 중심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1부에서 4부까지 서두에서 모두 톨레돏으로 시작하므로 마지막 5부에서도 야곱 톨레돏이 시작되는 37장 2절로 고려했다면 톨레돏에 따른 가장 적절한 구성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이삭 관련 내러티브의 범주는 학자들의 다양한 시각에 따라 제각각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내러티브 범주의 분석에서 볼 때 대부분 이삭 관련 내러티브가 독립적이지 못하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분리할지라도 다른 족장들에 대한 분류도 정당한 것인지의 질문이 제기된다. 역으로, 아브라함과 야곱 내러티브가 분명한 범위로 인정될 때 두 번째 족장으로서 이삭 관련 내러티브를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이삭 관련 내러티브가 이삭 내러티브로만 한정할 때 아브라함과 야곱 내러티브와 겹치는 위기적(?)인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대체하여 ‘이삭 가족 내러티브’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3. 창세기에서 이삭 가족 내러티브의 위치와 문학적 구조

1) 창세기의 구성과 이삭 가족 내러티브의 위치

본 연구에서는 창세기 내러티브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이삭 관련 내러티브의 재범주화(re-classification)를 시도한다. 창세기 내러티브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창조부터 바벨탑 내러티브(창 1:1-11:9)이며, 둘째는 족장 내러티브(창 11:10-50:26)이다. 첫 부분의 마지막이 바벨탑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이유는 10절부터 셈의 족보(10-26절)와 데라의 족보(27-32절)

40 강규성, *윗글을 보라*.

가 이어지기 때문이다.⁴¹ 셈과 데라의 족보에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함께 이후 내러티브에 진행되는 도입부 역할을 담당한다. 창세기 내러티브가 각각 톨레돏 문구를 필두로 읽혀지는 것은 단순하지 않으며 의미심장하다.⁴² 등장인물과 관련하여 아담의 계보(창 5:1-32), 노아(창 6:9)와 노아의 아들들 계보(창 10:1-32)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족장 내러티브에서는 셈의 족보부터 시작된다. 창세기는 창조부터 바벨탑 내러티브까지 하나의 큰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고, 족장 내러티브의 구성에서 이삭 가족 내러티브의 위치는 또 다른 톨레돏으로부터 이어지며 다음과 같다.

- (1) 창조부터 바벨탑 내러티브까지(창 1:1-11:9)
- (2) 셈과 데라의 족보와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창 11:10-25:18)
- (3) 이삭 가족 내러티브(창 25:19-37:1)
- (4) 야곱 가족 내러티브(창 37:2-50:26)

위 구분에서 창세기 1-11장을 제외하고 족장 내러티브의 경우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셈의 족보로부터 시작하여 데라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소개된다. 특징적인 것은 이 부분에서 이삭의 출생(창 21장)과 모리아 땅에서 제물로 바치려는 사건이 나오지만(창 22장) 이삭의 어린 시절일을 감안하면 아브라함 족장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아브라함 죽음 기록 이전과 이후 나홀의 족보(창 20:20-24)와 이스마엘 족보(창 25:12-18)가 나오는데 이 부분까지 확장하여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로 간주할 수 있다.⁴³ 두 번째 부분은 이삭의 족보(창 25:19)로부터 시작하여 쌍

41 셈의 족보와 데라 족보의 연결인가 분리인가의 문제에 관하여는 김도형, 윗글 (2018), 169-175를 보라.

42 Matthew A. Thomas, *These Are the Generations: Identity, Covenant, and the toledot Formula* (New York: Bloomsbury, 2011), 41-48, 127-129.

43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 25장 11절까지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범위에서 아브라함 톨레돏 문구 또는 머리말(*toledoth heading*)이 텍스트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마틴(Lee R. Martin)의 주장대로 창세기 12장 서두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형태(백성을 창조하심)로 되어 있고 이것은 창세

동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출생 보도에 관한 내용이 함께 등장한다. 이 부분에서는 이삭의 노년 시절의 모습이 조명된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밧단아람(Paddan-Aram)에서 머물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죽음 기록(창 35:27-29)이 나오기까지 내러티브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지만 가족의 중심점은 두 번째 세대이자 족장으로서 이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⁴⁴을 중심으로 가족 내러티브가 구성된다. 이 부분에서는 애굽으로 이동하게 된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내용과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의 형제들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 족장 내러티브의 세 분류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자녀들과의 내용이 포함되며 이야기의 중간에 위치한 이스마엘(창 25:12-18)과 에서 관련 족보(창 36:1-43) 등을 가족의 범주로 확대할 수 있다. 창세기 족장 내러티브 타이틀의 인물은 최소한 그의 직계 가족 2대에서 아버지가 족장으로서 상징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⁵ 이에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전통적인 족장 공식의 이해는 정당한 것이며 ‘이삭 가족 내러티브’가 최종적인 형태의 위치에서 텍스트를 읽는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이제 이삭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이삭 가족 내러티브의 문학적 구조를 통해 그 의미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2) 이삭 관련 자료

창세기 족장 내러티브에서 비교적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삭에 관한 내용만을 따로 떼어놓고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삭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가족 중심에서 텍스트를 읽을 때 더욱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대부분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진

기 1장의 하나님 선언(천지를 창조하심)과 비슷하므로 이는 틀레돏 문구와 병행된 것 내지는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토마스의 윗글 49-51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참조하라.

44 Kim, 윗글 (2012), 486-493.

45 한편, 틀레돏 문구에 언급되는 인물들 가운데 데라의 족보(창 11:27)에서는 아브라함, 이삭의 족보(창 25:19)에서는 야곱, 야곱의 족보에서는 요셉(창 37:2) 등이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Thomas, 윗글, 50을 보라.

행되기 때문이다. 비록 이삭에 관한 활동 내용과 그 범주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자체로써 특성을 보여준다. 보스(Boase)는 이삭 자료에 대한 공시적 읽기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번호 목록은 필자가 첨부하였다.

- (1) 21장 1-7절 이삭 출생
- (2) 21장 8-21절 이삭의 젖땀과 이스마엘의 추방
- (3) 22장 1-19절 이삭 생명의 위협
- (4) 24장 1-64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 (5) 25장 1-6절 이삭의 상속
- (6) 25장 7-11절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 (7) 25장 19-27절 이삭 자녀들[에서와 야곱]의 출생
- (8) 26장 1-33절 중심 인물로서의 이삭
- (9) 27장 1-28장 9절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
- (10) 35장 27-29절 이삭의 죽음⁴⁶

보스에 따르면, 이삭 관련 내러티브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10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자녀들과 함께 3대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락들 사이에 제외된 부분들을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다.

(2)-1 21장 22-34절(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3)-1 22장 20-24절(나홀의 후예), (3)-2 23장(아브라함이 막벨라 동굴을 구입함), (4)-1 24장 65-67절(이삭 어머니의 죽음과 이삭이 위로받음) (6)-1 25장 12-18절(이스마엘의 후예), (7)-1 25장 28-34절(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거래), (8)-1 26장 34-35절(에서의 이방인 아내들과 부모의 근심), (9)-1 28장 10-35장 26절(야곱이 브엘세바, 하란, 벤엘, 에브랏까지의 여정), (10)-1 36장(에서와 세일의 자손 및 에돔 왕과 에서 자

46 Boase, *읽글*, 313.

손 족장들). (10)-2 37장 1절(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땅에 거주함).

여기에 추가적으로 언급된 10개 단락의 내용들 가운데 절반 이상(예를 들면 (4)-1, (7)-1, (8)-1, (9)-1, (10)-1, (10)-2)는 이삭 또는 그 자녀와 관련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자료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코터(David W. Cotter)의 가족 세대별 분류는 흥미롭다. 그는 ‘첫 번째 세대’(아브라함)를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 18절까지 구분하고, ‘두 번째 세대’(이삭)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로 이해한다. ‘세 번째 세대’(야곱)는 28장 10절부터 36장까지, ‘네 번째 세대’(요셉)는 창세기 37-50장이다.⁴⁷ 코터는 첫 세대의 끝부분을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마무리한다. 그러나 그가 두 번째 세대인 이삭 이후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창 28:10)부터 세 번째 세대로 구분한 것은 틀레돏 문구로 시작하는 첫 세대의 단락 구성과 비교해 볼 때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삭의 틀레돏 문구는 창세기 25장 19절이며 그의 죽음 기록은 35장 27-29절에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창세기 37장 2절a는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 이후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세대의 틀레돏이며, 이 부분부터 야곱의 족보, 즉 야곱 가족 중심으로 내러티브가 전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상 창세기 11장 27절은 ‘데라의 족보’이며 데라 중심의 가족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시작되지만 32절에서 갑자기 마무리되는 듯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⁴⁸ 창세기 12장 이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틀레돏은 등장하지 않고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는 창세기 11장 10절에 등장하는 셈의 족보에서부터 기원하고 있음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각각의 가족과 관련하여 부수적인 내용들은 결코 동떨어진 것들이 아니다.

47 David W. Cotter,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Genesi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3), 83-328.

48 김도형, *윗글* (2018), 175-181.

3) 이삭 가족 내러티브의 문학적 구조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 이후에 등장하는 이삭 가족 내러티브는 연속적인 톨레돏의 관점에서 볼 때 위에서 언급된 이삭 관련 자료와 이외 단락들을 포함하여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

A 창 25:19-26 이삭 **죽보**의 시작과 자녀들(에서와 야곱) 출생

B 창 25:27-34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거래 및 **상실**

C 창 26:1-33 이삭, 가나안에서 그랄을 거쳐 브엘세바까지의 **역정**과 아비멜렉과 계약

D 창 26:34-35 에서, 헛 족속 아내들을 취함과 부모(이삭과 리브가)의 **근심**

D' 창 27:1-28:9 이삭의 야곱 축복, 에서가 가나안 사람과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된 **근심**

C' 창 28:10-35:26 야곱, 가나안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거쳐 벧엘, 마프레까지의 **역정**

B' 창 35:27-29 이삭의 **죽음(=상실)**

A' 창 36:1-37:1에서(에돔) **죽보**와 세일의 자손 및 에돔 왕과 에서 자손 족장들 목록, 야곱이 아버지(이삭)가 거류했던 땅에 거주함

이삭 가족 내러티브는 교차대구(chiastic pattern)의 잘 짜인 구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위 구성에서 처음과 끝부분(AA')은 이삭의 죽보(톨레돏)를 중심으로 아버지로서 쌍둥이 자녀들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에서의 죽보까지 완결된다. 이삭 가족 내러티브는 전형적인 톨레돏 문구에서 톨레돏 문구 앞부분까지 하나의 단위로 끝난다. BB'는 상실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양도한다는 점에서 장자권의 상실은 이삭의 죽음(=상실)과 병행될 수 있다. CC'는 이삭과 야곱이 각각 자신이 머물던 곳을 벗어나서 여정을 떠나는 장면에 해당한다. 이삭 가족 내러티브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DD'는 에서가 헛 족속 아내들, 가나안 사람과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부모에게 근심이 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이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밧단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딸 가운데에서 찾으라는 것과 대조된다(창 28:1-2). 이렇게 이삭 가족 내러티브의 구조는 족보—상실—여정—근심이라는 네 가지의 주제가 교차대구의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른바 인물 중심의 이삭 내러티브가 족장의 대표성으로만 지칭되는 것보다 ‘이삭 가족 내러티브’라는 확장적인 표현이 훨씬 타당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삭 가족 내러티브로 지칭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삭 인물에 대한 묘사 때문이다. 그는 자녀들을 대표하는 아버지의 위치에 있지만 그들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아브라함 내러티브에서도 아들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듯이 이 부분에서 아버지로서 그의 역할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가족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틀리가 언급한 대로 “성서 텍스트에 나오는 내러티브는 이야기 구성에 충실할수록 그렇게 전개된다. 성서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화와 연결성을 수락하는 해석학적 공간을 여는 것”⁴⁹이라는 표현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이삭 가족 내러티브의 문학적 구조를 통해 다음에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⁵⁰을 부각시키는 성서 내러티브의 유기적인 연결성에 대하여 다루려고 한다.

4. 이삭 가족 내러티브의 스토리텔링

성서 내러티브 구성에 관심을 보이는 야이라 아밋(Yairah Amit)에 따르면, 내러티브의 관계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내러티브의 저자는 본문의 줄거리를 구성하며 발단(exposition)과 결말(ending)을 제외한 중간 부분에서 세 단계를 고려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전개(complication), 변화(change), 해소(unraveling) 등의 과정이다.⁵¹ 이와 유사하게 코터(Cotter)는 줄거리가 내러

49 Hartley, *읽글*, 59-60.

50 Mieke Bal, *On Story-Telling: Essays in Narratology* (Sonoma: Polebridge Press, 1991)를 참고하라.

51 Yairah Amit, *Reading Biblical Narratives: Literary Criticism and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티브 안에서 사건들의 형식이라고 말하면서 기본적인 다섯 단계를 소개한다. 그는 발단(exposition), 촉발점(inciting moment 또는 the initiating action), 상승 작용(rising action 또는 the complication), 하강 작용(falling action 또는 the resolution), 결말(conclusion) 등 연속적인 고리로 이어져 있다고 주장한다.⁵² 필자는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검토, 수정하여 이삭 가족 내러티브를 통해 교차대구의 구조적인 형식의 이야기 방식을 기반으로 선형구조(linear schemes)의 다섯 단계(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스토리텔링으로 다시 읽도록 제시한다. 앞에서 언급한 이삭 가족 내러티브의 문학적 구조는 발단(A)-전개(BC)-위기(DD')-절정(C')-결말(B' A')로 재구성할 수 있다.

- (1) 창 25:19-26 이삭 족보의 시작과 자녀들(에서와 야곱) 출생 — **발단**
- (2) 창 25:27-26:33 두 아들의 장자권 거래와 상실 및 이삭의 여정과 아비멜렉 사이의 계약 — **전개**
- (3) 창 26:34-28:9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로 인한 부모의 근심과 눈이 어두운 이삭의 야곱 축복 — **위기**
- (4) 창 28:10-35:26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떠나보낸 뒤 얻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 목록 — **절정**
- (5) 창 35:27-37:1 이삭의 죽음(상실)과 에서(에돔)의 자손 목록 — **결말**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삭 가족 내러티브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과 그 내용은 다양하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삭이 대표 등장인물이지만 그렇다고 많은 지면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삭은 각 단계별로 가족 중심의 중요한 국면 전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Fortress Press, 2001), 46-47.

52 David W. Cotter,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Genesi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3), xxvii.

1) 발단

이삭 가족 내러티브의 발단은 데라 족보의 시작(창 11:27)과 같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족보’(창 25:19)의 소개로부터 이루어진다. 이것은 이삭이 앞의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에서 아들로서 여전히 종속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독자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이제부터 이삭은 본격적으로 아버지로서 가장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삭은 아브라함 죽음 이후 아들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상속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⁵³ 이와 동시에 이삭에게 두 아들, 그것도 쌍둥이가 태어남으로써 상속자의 역할을 담당할 후손들도 등장한다. 이삭 가족 내러티브의 특징은 처음과 마지막에서 자손의 출생과 족보의 언급이 양괄식구조(inclusio)로써 테두리를 감싸고 있다.⁵⁴ 이삭 가족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첫 족보가 이삭에 관한 것이라면 나머지 두 부분은 야곱과 에서의 후예들이고(창 35:22b; 36:1)⁵⁵ 더 나아가 에돔 왕들과 에서 후손의 족장들 목록도 언급된다(창 36:31-43).

2) 전개

이삭 가족 내러티브의 전개는 두 가지 이야기의 갈등이 서서히 분화되는 단계이다(창 25:27-26:33). 이 부분의 갈등은 이삭을 제외한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의 장자권 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이 거래는 야곱이 에서에게 음식물(לֶחֶם מִן הַבָּיִת, 레헴 우네지드)을 건네줌으로써 장자의 권한을 샀으며 이와 함께 맹세(בְּרִית, 사바)를 강요한다(창 25:30-34). 이후 에서와 야곱 사이에 갈등 촉발의 전조가 된다. 이로 인하여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형 대신 축복을 가로채는 명분을 얻는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처음으로 네게브 지역 브엘라헤로이(창 24:62; 25:11)를 떠나 블레셋 그랄로 이동을 하였으며,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부자가 되었으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갈등이 점점 고조되었다는 것을

53 Cotter, *윗글*, xxvii.

54 베스터민은 이것을 목록 본문(enumerative texts)이라고 부른다. Westermann, *윗글*, 406-407.

55 왕대일, *윗글* (1991.9), 71-95(특히 72-73을 보라).

보여준다(1-22절). 결국 이삭이 브엘세바로 갔을 때 아비멜렉이 그랄에서부터 방문하여 그와 맹세를 하고 계약을 맺게 된다. 보스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과 관련된 38개의 동사들이 아브라함 내러티브 가운데 애굽(창 12:10-20)과, 그랄(창 20:1-18)에서 있었던 아내/누이 에피소드의 중복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삭이 여전히 아버지의 그늘에 머물러 있다고 말한다.⁵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6-28장 세 장 첫 구절에서 주어로서 이삭의 등장은 한 가정의 아버지와 가족의 대표로서 독자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26장은 이삭 가족 내러티브에서 명확하게 이삭 중심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3) 위기

이삭 가족 내러티브의 위기는 중간 부분에 위치한다(창 26:34-28:9). 이 부분의 특징은 에서와 이삭 쌍둥이 아들 모두 부모에게 근심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위기적 상황에 놓인다.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심적인 부담을 안긴다. 에서는 사십 세에 가나안 사람 헷 족속의 이방인 여성 두 명(유딧,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된다(창 26:34-35). 또 하나의 위기는 야곱과 관련된 것이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 장자인 에서로 하여금 짐승을 사냥하여 음식을 만들어오면 축복을 하도록 대화하였다(창 27:1-4).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도록 계획을 세운다. 야곱은 에서보다 앞서서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준비하여 아버지께 가서 에서로 위장하여 축복을 가로챈다. 이후에 집에 도착한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두 번이나 소리 내어 울면서 동생을 죽일 것이라고 다짐한다(창 27:5-41). 리브가는 이런 상태에 처한 에서의 심정을 확인한 뒤 야곱을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시키는데 그를 편애한 것처럼 행동했던 이유는 에서가 데려온 헷 사람의 딸들 때문이라고 이

56 Boase, 윗글, 319-20; Thomas W. Mann, *The Book of the Torah: the Narrative Integrity of the Pentateuch* (Atlanta: John Knox Press, 1988), 51.

삭에게 고백한다(창 27:42-46). 결국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밧단아람으로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이 단락의 마지막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로서 에서의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서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다(창 28:1-9). 가나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에서는 부모에게 근심과 함께 일차적인 위기적 상황을 초래했으며, 에서 대신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된 이삭에게 또 다른 위기의 국면이 되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과 오랜 기간 헤어져야만 했다. 하지만 이삭 가족 내러티브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직접적인 위기의 원인은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과 관련 있다.

4) 절정

이삭 가족 내러티브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도 먼 거리를 떠나는 야곱의 긴 여정으로 채워진다(창 28:10-35:26). 이 때문에 토마스 만(Thomas W. Mann)은 “야곱이 실질적으로 ‘이삭 이야기’의 주인공이며 이것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6장까지 이어진다”⁵⁷고 언급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돌아오는 그의 여정까지 이삭과 리브가의 사는 동안에 가족 내러티브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창세기 28장 10절부터 긴 여정을 떠나는 부분에 이르러서야 야곱의 본격적인 역할은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야곱의 여정은 가나안을 떠나서 밧단아람을 거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일종의 순회여행(itinerary)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⁵⁸ 순회여행을 마칠 때까지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던 자로서 삼촌 라반에게 다시 속임을 당하기도 하였다(창 30:16-30; 31:7, 41). 이것은 속고 속이는 자들(deceived deceivers)의

57 Mann, 윗글, 51.

58 Coats, 윗글, 177-179. 코오츠는 창세기 26장 1-33절을 ‘여족장에 대한 위협’으로, 26장 34-28장 9절까지 ‘야곱이 집을 떠남’으로, 28장 10-33장 17절을 ‘계속되는 갈등’, 33장 18a-35:27을 ‘순회여행’(itinerary)으로 간주하며 34-35장 27절까지 가족의 갈등으로 다룬다.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⁵⁹ 주목할 점은 야곱의 여정이 결코 밧단아람에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창 31:18) 가야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라반과의 대화나 언약하는 장면(창 31:42, 53)과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아버지 이삭의 이름은 계속해서 언급된다(창 32:9). 야곱이 벵엘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창 35:12)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곱은 끊임 없이 아버지 이삭이 머무는 땅으로 귀환하도록 계속해서 씌름하고 있다. 비록 이 장면에서 이삭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는 야곱의 아버지이자 가족의 대표로서 독자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5) 결말

이삭 가족 내러티브의 결말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이삭의 죽음(창 35:27-29)이며, 두 번째는 에서의 족보 이외에 세일의 자손과 에돔 왕들, 에서 자손 족장들의 목록(창 36:1-43)에 관한 것이다. 아브라함 가족 내러티브의 결말처럼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기록 이후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언급되었듯이 이삭 가족 내러티브 역시 동일하다. 이스마엘과 에서는 결코 독립적인 족장의 위치도 아니었으며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왜 족장 가족 내러티브에서 그들의 족보가 언급되어야 했는가?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이삭도 자신들의 죽음 기록으로 각각의 내러티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에서와 관련해서 볼 때 더욱 포괄적인 범위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창세기 족장 내러티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모두 각 개인의 내러티브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가족 내러티브가 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와

59 예를 들면, 야곱의 경우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 때 그것을 묵인했으며 라반이 길르앗 산까지 쫓아왔을 때 그 출처를 끝까지 언급하지 않았다(창 31:19-42).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최종 본문을 대하는 독자로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창 25:19)라는 표현을 통해 만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늘 속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야곱도 먼 여정을 끝낸 이후까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창 37:1)라는 표현처럼 아버지 이삭의 위치는 여전히 그의 가족 내러티브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5. 닫는 말

성서 내러티브는 그 자체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준다. 이삭 관련 내러티브는 이삭 내러티브가 아닌 ‘이삭 가족 내러티브’로 읽어야 한다. 이삭 가족 내러티브(창 25:19-37:1)는 창세기의 최종적인 본문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볼 때 창조부터 바벨탑 내러티브(창 1:1-11:9)에 이어 족장 내러티브(창 11:10-50:26) 가운데 아브라함 가족과 야곱 가족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며 독특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아브라함—이삭—야곱이라는 세 족장의 전형적인 순서에 견주어 볼 때 이삭은 위기적 상황으로 이해되었다. 그동안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하여 역할의 비중이 약하고 단편적이며 부분적인 내용의 내러티브 구성의 일부로 해석되었다. 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열국의 아버지)이며, 아들 야곱이 국가의 조상(이스라엘)으로 대표되는 반면에 이삭 자신에게는 특징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과는 달리 창세기에서 자신이 머물렀던 지역에서 가까운 그랄(Gerar)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속의 땅에서 이동하지 않았던 족장이다. 비록 그가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평온한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결혼할 당시의 나이가 이미 40세였고(창 25:20), 그의 아내 리브가는 오랫동안 자식을 낳을 수 없었으며, 20년 후 에서와 야곱을 낳기까지(창 25:26) 위기의 순간들을 잘 극복하였다. 더 나아가 이삭은 위험이 닥쳐오고 암담한 현실이라는 어려운 상황과 선택의 순간에서 어떻게 판단하며

결정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 자신의 역할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깨끗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족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묵묵히 수행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며 기다리는 아버지로서의 이삭이 언제 어디에서나 그 자리에 있되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범주화할 때 이삭 가족 내러티브는 구조적으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삭 가족 내러티브는 구약성서에서 가장 거대한 범주에 속하는 제1내러티브(창~왕하)의 지평에서 바라볼 때 여러 곳에 흩어진 이삭 관련 자료들만큼이나 나라를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감당하게 될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예기(prolepsis)하는 위기의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이것은 최종적인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에게 시대적인 위기감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화상의 단면으로 다가올 수 있다.

6. 참고문헌

- 강규성, 「창세기에 대한 성경신학적 묵상: 창조주 하나님의 방문」 (서울: 예영 B&P, 2010).
- 강사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가정 이야기: 설교를 위한 창세기 연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8).
- 김도형, “내러티브 비평과 구약 제1내러티브(창세기~열왕기하)의 구조”, 「구약논단」 62집 (2016년 12월), 155-191.
- _____, “데라 족보(창 11:27-32)의 선교적 기능—내러티브 관점을 중심으로”, 「대학과선교」 제38집 (2018), 163-187.
- 김재구, “이삭 이야기의 신학적 재조명”,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1집 (2010), 5-30.
- _____, 「창세기 로드맵」 (서울: 홍림, 2018).
- 서명수, “아굽 이야기의 구조와 주제”, 「문학과 종교」 제10권 1호 (2005), 63-78.

- 왕대일, “다시 읽는 야곱-에서 이야기”, 『세계의 신학』 12 (1991.9), 71-95.
- _____, “다시 읽는 야곱 이야기(창 25:19-36:43): 그 구조(Composition)와 의미 (concept)”, 『구약논단』 4집 (1998년 4월), 5-40.
- _____, “이삭을 위한 변증: 창세기 25장 19-21절”, 『기독교사상』 47/6 (2003.6), 102-109.
- 유연희,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이야기”, 『헤르메니아 투데이』 22 (2003), 67-83.
- _____, 『아브라함과 리브가와 야곱의 하나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이희학,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다시 읽는 ‘아브라함-사라 이야기’”, 『구약논단』 49집 (2013년 9월), 14-41.
- 정석규, 『구조로 읽는 창세기』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6).
- 차준희, 『창세기 다시 보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Amit, Yairah, *Reading Biblical Narratives: Literary Criticism and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 Bal, Mieke, *On Story-Telling: Essays in Narratology* (Sonoma: Polebridge Press, 1991).
- Bergant, Dianne, *Genesis: In the Beginning*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3).
- Boase, Elizabeth, “Life in the Shadows: The Role and Function of Isaac in Genesis: Synchronic and Diachronic Readings”, *Vetus Testamentum* 51.3(Jul., 2001), 312-335.
- Brodi, Thomas L., *Genesis as Dialogue: A Literary, Histo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Brueggemann, Walter, *Genesis*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 Coats, George W., *Genesis with an Introduction to Narrative Literature* (Grand Rapids: W.B. Eerdmans Pub. Co., 1983).
- Cotter, David W.,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Gene-*

- si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3).
- Dorsey, David A.,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A Commentary on Genesis-Malachi*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 Fretheim, Terence E., "The Book of Genesis"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1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319-674.
-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 Hartley, Helen-Ann, *Making Sense of the Bible* (London: SPCK, 2011).
- Jeansonne, Sharon Pace, *The Women of Genesi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 Kim, Dohyung, "Genesis 37-50: The Story of Jacob and His Sons in Light of the Primary Narrative (Genesis ~ 2 Kings)," *ExpTim* 123.10 (2012), 486-493.
- Luter, A.B. and S.L. Klouda, "Isaac",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Pentateuch*, T. Desmond Alexander & David W. Baker (ed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3), 445-540.
- Mann, Thomas W., *The Book of the Torah: the Narrative Integrity of the Pentateuch* (Atlanta: John Knox Press, 1988).
- Martin-Achard, Robert, "Isaac", *ABD*, vol. 3 (New York: Doubleday, 1992), 462-470.
- Rendsburg, G.A., *The Redaction of Genesis* (Winona Lake: Eisenbrauns, 1986).
- Speiser, E.A., *Genesis*, AB vol. 1 (Gradin City: Doubleday & Company, Ic., 1982).
- Steinberg, Naomi, *Kinship and Marriage in Genesis: A Household Economics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33).
- Devora Steinmetz, *From Father to Son: Kinship, Conflict, and Continuity in*

- Genesi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 Thomas, Matthew A., *These Are the Generations: Identity, Covenant, and the toledot Formula* (New York: Bloomsbury, 2011).
- Turner, Laurence A., *Genesis* 2nd.,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9).
- Von Rad, Gerhard, *Genesis: A Commentary* (London: SCM Press, 1972).
- Waltke, Bruce K.,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 Wenham, Gordon J., *Genesis 16-50, WBC 2* (Grand Rapids: Zondervan, 2000).
- Westermann, Claus, *Genesis 12-36: A Continental Commentary* trans. by John J. Scull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검색어

이삭 가족 내러티브

톨레도트 문구

교차대구

스토리텔링

제1내러티브

The Literary Structure of Isaac's Family Narrative (Gen 25:19-37:1) and Its Storytelling

Dohyung Kim, Ph.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eoul Christian University

The phrase,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is a typical expression in the patriarchal narrative of the Old Testament and even in the New Testament. In this patriarchal triad, however, the second patriarch's name Isaac has been less considered as compared to his father Abraham and his son Jacob. This paper attempts to ascertain the text reading as 'Isaac's family narrative' rather than 'Isaac's narrative' through the related materials of the patriarch Isaac in the biblical narrative. According to the toledoth-formula in the book of Genesis, it should be accepted that Isaac's family narrative begins with the genealogy of Isaac in Genesis 25:19, and that its range continues to the first verse of chapter 37 just before the genealogy of Jacob the next generation in Genesis 37:2. Isaac's family narrative consists of eight units and four themes (genealogy – loss – travel – anxiety) and indicates a structural composition of chiasmic pattern (ABCDD' C' B' A').

www.kci.go.kr

It also presents a dynamic storytelling with the five step development of narrative such as exposition – complication – crisis – climax – ending. Although the contents of Isaac character are examined relatively fragmentary and sporadic and these can be considered as a crisis situation, the current position of Isaac's family narrative is not strange at all and is naturally constructed. Furtherm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mary Narrative (Genesis ~ 2 Kings), Isaac's family narrative may reflect the difficult situations of the exiles who lost their country and wandered or the people who returned to their homeland. The narrative also serves as a guide for today's readers to provide mental support and psychological consensus to overcome difficulties well in any crisis situation. The Isaac's family narrative is the indispensable link between Abraham and Jacob in the Genesis narrative.

Keywords

Isaac's family narrative

toledoth-formula

chiastic pattern

storytelling

the Primary Narrative

- 투고일: 2019년 10월 15일
- 심사일: 2019년 10월 26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10월 29일

www.kci.go.kr